

## 대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언어정체성인식과의 관계 \*

최진숙  
(영산대학교)

**Choi, Jinsook.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Proficiency and the Perception of Linguistic Ident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Linguistic Research* 26(2), 67-83.**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how strongly the participants perceive their linguistic identity and whether the perception of linguistic identity has effect on acquiring English skills. Two hundred eighty two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eliciting the perception of linguistic identity and their English proficiency was evaluated by the researcher.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which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their English proficiency were analyzed. The overall results on the surve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linguistic identity was very strong: they strongly perceived Korean language as a symbol and the Korean language is a necessary condition to be a Korean, and insisted that Korean people should speak Korean. Furthermore, predictions that participants'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would be influenced by the perception of linguistic identity were confirmed at this study since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the participants who were in a high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showed a weak perception of linguistic identity, whereas those who were in a low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appeared to be strong identifiers. Therefore, this study carefully concludes that English proficiency is closely related to their sense of linguistic identity. (**Yongsan University**)

**Keywords** English proficiency, linguistic identity, perception

### 1. 연구배경과 목적

지금 한국은 영어공교육 강화, 영어몰입교육, 영어조기유학, 심지어 영어공용화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영어 열풍을 넘어 이제 영어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영어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인은 영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다(김정원, 2009). 새 정부가 내 놓았던 영어공교육 강화 및 영어몰입교육 정책 등은 학생들에게 영어로의 노출시간을 늘려주고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제화시대에서 요구하는 영어실력을 갖추게

---

\* 이 논문은 심사위원으로부터 comments를 받아 수정하였고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누구나 다 인식하듯이, 이제 지구촌은 시간 공간적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면서 영어는 그 소통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의 80%가 영어이고 세계 인구 10억이 넘는 인구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영어는 분명 배워야 할 언어이고, 영어능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영어의 사회적 욕구와 함께 한국사회는 이제 유치원 어린 학생들까지도 영어 학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영어몰입교육 및 영어공용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으며, 논쟁을 넘어 제주도의 경우는 영어공용화 지역을 추진하고 있다(강한석, 2007).

이처럼 영어가 우리에게 실용적이라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영어조기유학과 영어사교육비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어도(최진숙, 2007), 영어몰입교육, 영어공용화 등은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 및 준비되지 않은 교육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어몰입교육 반대 의견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언어정체성 훼손이다. 즉, 영어가 모국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몰입 교육이 실시되면 우리 학생들의 모국어 습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결국 모국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언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병들고 황폐해진다는 두려움이 지배적이다. 또한 영어공용화는 지구촌의 획일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모국어 없이는 자신의 감정과 삶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몰입교육은 반 문화적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본제국주의에서 실행되었던 일본어몰입교육의 강요를 인용하면서 언어는 단순한 연결망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신창용, 2008). 영어공용화의 논란 속에서 동남아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과 인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생활이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와 형태는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박영준, 2005)도 있다. 결국 영어몰입교육과 영어공용화로 인한 가장 무서운 결과는 국어 홀대와 우리말 파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고(최인호, 2002), 영어로 인해 우리의 언어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인식이 영어의 가속화를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한국인들은 영어의 실용성을 인정하면서 언어정체성 훼손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사회언어학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당연한 두려움인지도 모른다. 언어는 한 그룹의 상징(symbol)이기도하고, 한 그룹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Fishman, 1972). 모든 인간집단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각 인간집단은 각기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의 사고, 그리고 경험들이 언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에 사상과 이념을 보여 주는 특정한 그룹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Holmes, 2001). 언어가 포함된 집단 구성원의 개념은 바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된다. 언어가 한 그룹을 대표한다는 논리에 많은 공격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예, Coupland & Jaworski, 1997), 언어가 한 집단을 구별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언어가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주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언어는 높은 가치가 있

는 것이다(Romaine, 1995). 특히 한국처럼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언어가 한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지리학적으로 강국들(러시아, 중국, 일본)로 둘러싸여 있어 늘 외적의 침범의 대상이 되어왔고, 35년(1910~1945)동안 일본식민지로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위협에 국가정체성위기를 겪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정체성을 유지시켜줄 하나의 수단으로써 언어가 중요할 수 있다(최진숙, 2004). 즉, 한국의 경우 한글은 한국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일 수 있고, 그래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고 한국어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한, 한국어는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체성 유지의 중요한 상징 및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강한 정체성 인식이 영어 학습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가 최진숙(2003)에 의해 발표되었다. 즉, 영어 학습자의 언어정체성 인식이 영어를 습득할 때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어능력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숙(2003)의 논문은 한국에서 18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그렇다면, 아직 언어정체성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언어정체성이 확립되었고, 영어는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의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뚜렷이 세워진 대학생들에게도 언어정체성 요인이 작용하는지 이 연구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언어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이 언어정체성 인식은 영어능력과 과연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보기 위한 것이다. 모국어 발달이 다 완료되었다고 믿고 있는 대학생들의 언어정체성 인식정도를 밝혀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효율적인 영어 학습을 위한 요인을 밝혀내는 중요한 접근이라고 이 논문은 의의를 두고 있다.

## 2. 언어정체성의 인식과 영어 능력

### 2.1 언어정체성의 정의

‘언어정체성’(linguistic identity)과 연관된 연구들(예, Edwards, 1985; Gudykunst, 1988; Giles & Coupland, 1991; Giles & Johnson, 1987)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활발히 진행되면서 ‘언어정체성’을 정의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고민해온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언어정체성’이란 자체가 감정적(affective)이고, 논리적인 것(logical)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언어정체성’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조금씩 상황(context)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기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udykunst(1988)는 언어정체성을 정의할 때 언어는 특별한 한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상징들(symbols) 및 규칙(rules)을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고 있는 하나의 색인적인 표현(indexical expression)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Giles 와 Coupland(1991)는 언어정체성이란 두 가지 면(aspect)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중 한 면은 주관적인 것으로써 자

신이 어느 특정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믿는 스스로의 인식(self-perception)이고, 또 다른 한 면은 객관적인 것인데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언어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특정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Giles와 Coupland(1991)는 이 두 가지 면에 더하여, 언어정체성 인식은 전후 상황(context)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어와 관련된 정체성은 인식적인 과정(cognitive process)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식이 변하면 자신의 언어의 특징 또한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한다.

원래 이 '언어정체성'이란 Giles과 Johnson(1987)이 연구한 '언어정체성이론(Ethnolinguistic identity theory)'에서 사용되면서 이론화되었으며, 이 언어정체성이론은 Tajfel(1974)의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이란, 사람들은 자신이 한 특정한 그룹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context)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룹에 적극적인(positive)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그룹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특징들(features)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최진숙, 2006). 이 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속한 그룹이 다른 그룹과는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특징들을 찾을 때, 만약 자신이 속한 그룹의 언어가 그룹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된다면, 다른 그룹과 자신들의 그룹을 차별 나게 하기 위해 그들만의 언어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진숙(2003)의 연구에서는 Giles과 Coupland(1991)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언어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다. 한국인의 언어정체성은 한국에 속해있다고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스스로의 인식(self-perception)으로써 '주관적인 특징'(subjective features)의 하나로 정의할 수 있고, '객관적인 특징'(objective features)을 보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타 그룹의 구성원들이 보았을 때 한국인이라고 특징화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특징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언어의 그룹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그룹의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자신의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언어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언어정체성' 또한 최진숙(2003)의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실험참가자들이 한국어를 쓰면서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따라서 한국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믿고, 한국어는 본인에게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인 한국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2 영어능력의 정의

일반적으로 '영어능력'이란 영어를 구사하고 쓰고 읽을 수 있는 영어언어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영어능력'은 Y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양으로 선택한 영어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영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활동 및 과제 평가, 그리고 지필시험 등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 즉,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은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일반(general) 영어회화에 대한 이해도와 표현력을 의미하며,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영어 듣기에 대한 이해 능력 또한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읽기 및 쓰기 활동에는 문

법, 독해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교재를 이해하는 활동과 영어로 이해한 내용을 영어로 작문하여 표현하는 체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능력들을 이 논문은 모두 '영어능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업을 들은 영어 과목 평가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준 학생을 영어능력이 높다고 정의하고 있고, 반대로 낮은 결과를 보여준 학생을 영어능력이 낮다고 정의하고 있다.

### 2.3 언어정체성 인식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언어정체성 인식이 영어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예, Beachman, 2001), 일반적으로 영어습득으로 인한 영어능력 향상과정에서 언어정체성 인식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최진숙(2003)의 연구결과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최진숙(2003)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정체성 인식은 영어능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영어학습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한국에서 공교육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180명을 대상으로 언어정체성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조사와 영어능력, 즉 영어 말하기와 듣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인터뷰가 시행되었다. 영어인터뷰에 의해 평가된 영어능력 정도를 5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언어정체성 인식도를 분석해보았다. 결과는 언어정체성 인식과 영어능숙도가 서로 관련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영어능숙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언어정체성 인식이 약하게 나타난 반면, 능숙도가 낮은 그룹에서의 언어정체성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의미는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은 한국어가 한국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인은 한국어를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할 때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도 영어능숙도가 높은 학생들보다 강했으며, 영어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국어에 대한 강한 인식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영어로의 노출도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어로의 노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언어정체성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영어 학습 시간을 높이고, 영어원어민을 자주 만나고, 해외여행을 자주 함으로써 영어와의 접촉 기회를 높이고, 영어를 평소애 사람들과 많이 사용하면 이러한 인식도는 점점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언어정체성 인식도를 낮추어야 하고, 인식도를 낮추려면 영어와의 노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이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이처럼 언어정체성인식이 너무 강하면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진숙(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연구들 또한 많이 조사되었다. 이민 국가, 또는 다중언어국가들에서 이루어진 Dole(1987), Young과 Gardner(1990), Lambert(1974) 등에 의한 연구들이 있고,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진 Ebele(2001)와 Edamatsu(1978)의 연구들이 있다. 우선 Dole(198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퀘벡 대학에서 불

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후, 어떤 요소들이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많은 요소들 중에서 영어원어민과의 이전 경험과 함께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언어정체성 인식이었음이 밝혀졌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학생들보다 약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더 뛰어났음을 증명해 보였다. 불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은 불어모국어자가 영어사용자가 되어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영어를 배우는 것은 불어 문화와 언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어가 그들의 민족 정체성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Young과 Gardner(1990)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정체성 인식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홍콩에서 온타리오(Ontario)로 영어공부를 하러온 광둥어(Cantonese)가 모국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언어능력은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언어정체성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확연히 달랐다. 즉, 자신의 모국어를 강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에 낮은 능숙도를 보였다. 낮은 언어학습 성취도를 보여준 학생들은 자신의 모국어가 그들의 문화 정체성의 한 일부라고 따라서 그들의 모국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는 결국 Lambert(1974)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되었는데, Lambert(1974)의 연구는 캐나다의 학생들 중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정체성에 대해 약한 인식도를 보여준 반면, 불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강한 인식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정체성과 같은 감정적(affective) 요소들이 언어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기술을 습득하는데 이러한 정체성 인식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eachman(2001)의 연구에 따르면, 205명의 실험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성별, 나이, 선생, 모국어 능숙도, 프로그램들, 정체성인식 등)을 영어능력실험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남녀 성별 요인(gender factor)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영어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Beachman(2001)은 언어정체성인식은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습자의 영어능력은 여러 가지 요소들, 즉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 및 학습 환경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언어정체성 인식이 가장 영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비슷한 영어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그들의 모국어를 유지 또는 부활시키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진숙, 2004). 따라서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강할 수 있다. 이 강한 정체성 인식이 영어능력 향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Ebele(2001)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Ebele(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어가 중요한 취업 수단이 되고 권위가 되고 본인의 경쟁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대만인들은 영어

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에 많이 노출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영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만인들은 자신의 모국어가 영어로 대체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의 나라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을 약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일본인 역시 국가정체성과 문화, 역사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damatsu(1978)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은 종종 이 언어정체성 인식 때문에 영어의 유창성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언어행동에서 영어 문화 패턴들을 형성하는데 저항하고 있었고, 결국 이 인식은 교실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언어정체성 인식은 영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일반적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자

이 논문의 실험을 위해 연구자의 강의를 한 학기 이상 들었던 Y대학교 학생 282명(남학생 149명, 여학생 133명)이 설문지 조사와 영어능력조사에 참여했다.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교양필수로 영어 과목을 선택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다.

#### 3.2 설문지조사

설문지의 내용은 최진숙(2003)의 연구를 사용된 설문지를 가지고 기초 작업을 한 후 대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다시 재 작업되었다. 이 설문지의 기초 제작은 이미 여러 번의 시험조사(pilot test)를 거쳐 제작되었지만, 설문대상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문항신뢰도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를 돌리기 전 시험조사에 연구자의 수강생 20명이 참여하였다. 이전 시험결과와 이번 시험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De Vaus(1995)의 체크포인트(checkpoint)를 참고하여 시험조사 후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질문,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질문구조 등은 다시 수정하거나 재조정하여 본격적인 설문지 조사에 나섰다. 설문지 조사는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수업시간에 연구자에 의해 직접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설문참가자들에게 설문지가 논문의 자료로만 쓰일 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과 답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였고, 영어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이름을 쓰도록 하였으나 모든 통계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정확히 전달하였다. 따라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신껏 자신의 생각을 설문지에 쓰도록 하였다.

언어정체성 설문지는 얼마나 강하게 모국어와 관련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영어가 한국의 공용어가 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2)한국어(한글)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얼마나 강하게 생각하는지; 3)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4)모국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5) 한국의 문화의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6)모국어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등을 물어서 실험참가자들이 모국어와 자신이 속한 그룹과의 연계 상태를 인식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영어 사용 시 언어정체성 인식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7)영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지; 8)영어를 사용할 때 본인이 한국인 아닌 것처럼 느끼는지; 9)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10) '한국인'이라는 것에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모국어와 영어에 대한 느낌 및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감정적인 느낌과 이성으로 느끼는 유용성을 비교해봄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언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태도에 따라 그 언어에 대한 학습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은 11)영어에 대한 느낌과 12)한국어에 대한 느낌, 그리고 13)영어에 대한 유용성과 14)한국어에 대한 유용성이었다. 그리고 설문지는 5-포인트 스케일(5-point scale)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5'는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1'은 가장 부정적인 답변을 나타낸다. 아래에 샘플이 나와 있다.

1. 영어가 한국의 공용어가 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적극 찬성 한다    :    :    :    :    :    적극 반대 한다  
                   5    4    3    2    1

3.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적극 동의 한다    :    :    :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4    3    2    1

연구 자료는 컴퓨터 작업으로 입력되었으며, 최근 사회과학분야의 설문지 통계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of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에 대한 분석과 통계가 이루어졌다.

### 3.3 영어능력조사

영어능력은 연구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시고사 및 기말고사 그리고 수업 시 활동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측정되었다. 수시고사와 기말고사는 각각 20%와 30%로 영어이해능력(reading)과 영어쓰기능력(writing)을 각각 지필시험 결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영어듣기능력(listening)과 영어말하기 능력(speaking)을 오디오를 통해 나오는 회화내용 이해하기와 역할극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입체적인 평가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위의 이름별로 영어성적을 기재한 후, 영어성적별 4그룹, 즉, A 그룹: 90-100점, B그룹: 80-89점, C그룹: 70-79점, 그리고 D 그룹: 70점미만으로 나누었다. 70점미만의 학생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70점미만 학생들을 모두 한 그룹으로 만들었다. 사실 A 그룹과 B그룹 모두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90점과 89점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A+B그룹과 C+D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싶어 4그룹으로 세분화시켰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그룹별 인원이 나누어졌다; A 그룹: 74명, B 그룹: 86명, C그룹: 78명, D그룹: 44명. 그런 후, 그룹별로 설문지에 있는 각 항목에 대한 통계를 내었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1학기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결과와 지필 및 활동평가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 4.1 언어정체성 인식도

먼저 영어점수별로 4 그룹을 나눈 각 그룹별 언어정체성 인식도에 대한 통계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1. 그룹별 평균 언어정체성 인식 포인트

	A(90-100)	B(80-99)	C(70-79)	D(70 미만)	전체평균
E	2.75	2.63	2.46	2.40	2.56
F	4.51	4.59	4.50	4.70	4.58
G	3.65	3.81	4.24	3.50	3.80
H	4.58	4.76	4.76	4.70	4.70
I	4.31	4.43	4.66	4.60	4.50
J	4.45	4.59	4.78	4.60	4.61
K	1.63	1.98	2.05	1.90	1.89

L	1.63	1.82	1.88	1.91	1.81
M	3.24	3.49	3.76	3.90	3.60
N	3.94	4.00	3.97	4.20	4.02
O	3.92	3.55	3.32	3.10	3.47
P	4.71	4.66	4.49	4.50	4.59
Q	4.70	4.47	4.49	3.90	4.39
R	3.94	4.19	4.30	4.57	4.25

(5: '매우' (긍정적)      1: '전혀' (부정적) )

- E: 영어가 한국의 공용어가 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F: 한국어(한글)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G: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H: 모국어인 한국어(한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I: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J: 한국어(한글)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  
 K: 영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한국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L: 영어를 사용할 때 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십니까?  
 M: 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얼마나 강하게 느끼십니까?  
 N: '한국인'이라는 것에 얼마나 행복을 느끼십니까?  
 O: 영어에 대한 느낌은?  
 P: 한국어에 대한 느낌은?  
 Q: 영어에 대한 유용성은?  
 R: 한국어에 대한 유용성은?

우선 모국어와 관련해 언어정체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각 그룹의 평균 포인트를 살펴보자. F, G, H, I, J 등이 그러한 질문에 대한 평균 포인트는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실험참가자들은 한국어(한글)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고(F=4.58), 모국어인 한글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4.70). 나아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어가 참가자 본인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I=4.50, J=4.61). 아주 높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체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N=4.02),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국어와 자신이 속한 그룹과 관련하여 강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G 항목의 평균 포인트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포인트를 보이고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 중 많은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 영어공용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자. 영어가 공용화가 되는데 찬성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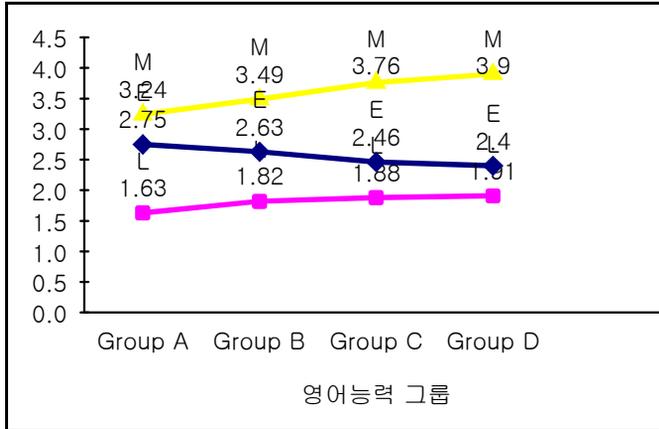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E=2.56$ ), 이는 아직 언어정체성이 강한 우리나라에 영어 공용화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K(1.89)$ 와  $L(1.81)$ 을 눈여겨볼만 하다. 즉, 영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한국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많은 실험참가자들은 영어로 말할 때, 크게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고, 이는 위의 G 항목, 즉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진다.

나아가  $M(3.60)$  항목은 사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이 항목에 담겨져 있다. 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3.60 이라면 이것은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히 높은 점수였다. 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영어 학습에 분명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Young과 Gardner(1990)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예측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한 느낌은 국어에 대한 느낌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포인트가 낮게 나타났다. 영어를 필요에 의한 기능(instrumental function)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모국어인 한국어는 좋은 느낌과 유용성 모두에서 큰 포인트를 받았다. 이는 실험참가자들이 모국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영어능력과 언어정체성 인식도

이제 이러한 언어정체성 항목들의 포인트가 영어능력 그룹과 서로 연관이 있는지 위의 표 1과 분산분석인 아노바(ANOVA)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개의 아이টে를 제외하고 아주 놀랍게도 많은 아이টে에서 인식도는 영어 능력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몇 아이টে(예, I, J, N 등) 영어능력 별 정체성 포인트가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이টে들이 여전히 영어능력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I(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의 경우, 그룹 A의 경우 4.31 이지만 그룹 D의 경우는 4.60으로 나타났다. J(한국어(한글)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십니까?)의 경우, 그룹 A의 경우 4.45 이고 그룹 D는 4.60을 보였다. N('한국인'이라는 것에 얼마나 행복을 느끼십니까?)의 경우 또한 A 그룹이 3.94 D 그룹이 4.20을 보임으로써 정체성 인식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아이টে에서 영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낮은 포인트를, 반대로 영어능력이 낮은 그룹에서 높은 포인트가 나타나 결국 영어능력과 정체성인식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능력 그룹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들을 아래의 꺾은 선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그림 1. 영어능력 vs E, L, M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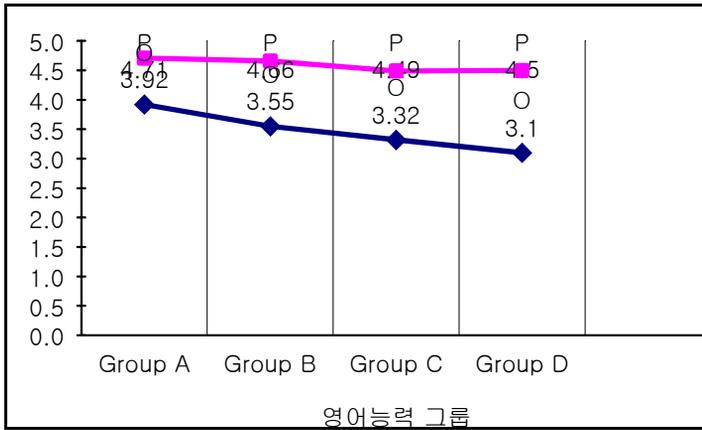


우선 아이템 E(영어가 한국의 공용어가 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포인트 점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한국의 공용어로 채택되는데 그리 크게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평균=2.56/5.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포인트 점수는 그룹 A에서 D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영어에 능숙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공용화에 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어 능력이 낮은 그룹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영어가 모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에 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능력과 영어공용화 인식이 서로 관련 있음은 ANOVA 결과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다( $F(4,711)=2.756, p=0.033$ ).

항목 L(영어를 사용할 때 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십니까?)은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L 또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평균 1.81/5.00) 이는 영어를 사용할 때 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처럼 적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능력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미를 주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인트를 보이고,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포인트를 보이는데 이는 영어능력 그룹별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1.63-1.82-1.88-1.91). 결국, 영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영어를 사용할 때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영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음을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ANOVA:  $F(1,140)=4.389, p=0.003$ ).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항목 M(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얼마나 강하게 느끼십니까?)을 분석해 보았다. 이 항목은 위의 두 항목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는데(평균 3.60/5.00), 평균적으로 이 실험 참가자들은 영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항목 역시 영어능력 그룹별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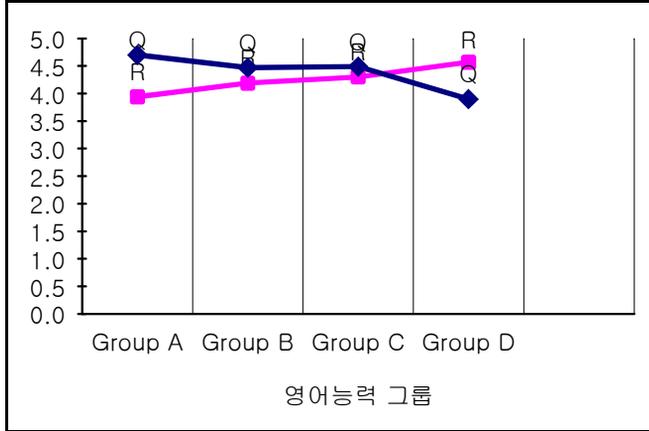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정체성 인식이 영어능력에 분명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는 대목이다(ANOVA:  $F(1.257)=4.970, p=0.001$ ). 즉, 영어가 자신의 모국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영어 학습에서의 효과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영어능력 vs 영어. 한국어에 대한 느낌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영어 vs 한국어에 대한 느낌과 유용성이다. 우선 두 언어의 느낌은 언어사용자의 호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호감도는 영어 학습 및 영어능숙도와 관련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예, Gardner, 1985) 증명되었다. 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F(1.171)=3.337, p=0.014$ ) 및 국어에 대한 느낌( $F(1.338)=3.283, p=0.016$ )은 영어능력이 낮은 그룹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두 언어에 대한 느낌이 D 그룹으로 갈수록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차이: A 그룹 0.79, D 그룹 1.4). 즉, 국어에 대한 느낌은 영어능력이 뛰어난 그룹이나 그렇지 못한 그룹 사이에 큰 차이(0.21)가 없었지만, 영어에 대한 느낌은 A 그룹과 D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0.82). 이것은 영어능력이 낮은 그룹의 학생들은 국어보다 영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영어( $F(1.259)=4.975, p=0.001$ ) 및 국어에 대한 유용성 ( $F(2.408)=6980, p=0.0001$ )에 대한 결과였다. 영어에 대한 유용성은 D 그룹으로 갈수록 내려갔고, 국어에 대한 유용성은 반대로 D 그룹으로 갈수록 올라갔다. 이는 영어의 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영어의 유용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한편, 영어의 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영어의 유용성을 약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국어의 유용성은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영어능력 vs 영어. 한국어에 대한 유용성



그렇다면 ‘언어정체성 포인트’와 ‘영어능력’이라는 변수(variable)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피어슨상관계수를 이용해 상관관계 분석(co-relational analysis)을 해보았다.

표 2. ‘영어능력’과 ‘언어정체성’ 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r)

	E	F	G	H	I	J	K	L	M	N
ES	0.422**	0.179	0.153	0.101	0.269**	0.292*	0.217*	0.413**	0.474**	0.127

\*p<0.05, \*\*p<0.01

r=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ES: English skills(영어능력) E:영어가 공용어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 F:한글의 정체성 인식 G: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 H: 한글에 대한 자부심 I: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 J: 한국어의 중요성 인식 K:영어사용 시 한국어 인식 L: 영어사용 시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M: 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한다는 인식 N:자신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행복

위의 표 2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체성 인식 항목에서 눈에 띄는 상관계수를 발견할 수 있다: E(r=0.422, p=0.001), I(r=0.269, p=0.025), J(r=0.292, p=0.001), K(r=0.217, p=0.032), L(r=0.413, p=0.001), M(r=0.474, p=0.001). 이것은 ES(영어능력) 변수가, 영어 공용어에 대한 동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 한국어의 중요성 인식, 영어 사용 시 한국어 인식, 영어 사용 시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영어가 한국어를 위협한다는 인식과 유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되었던 영어능력과 언어정체성 인식이 서로 관련이 높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5. 결론

이 논문은 특정한 집단의 대학생들이 언어정체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대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논문의 목적을 위해 설문지조사와 영어능력조사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실험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뚜렷한 언어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언어로 자신은 특정한 집단의 한 일원임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정체성 인식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매우 연관이 있음이 분산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증명되었다. 즉, 언어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참가자일수록 자신들의 영어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언어정체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하는 참가자들은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정체성 인식이 어떤 메카니즘(mechanism)으로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증명할 수 없으나, 분석결과를 볼 때 분명 정체성인식은 영어 학습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진숙(2003)의 연구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와 비교해보면 나이 요인(age factor)은 정체성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직 모국어발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나이의 초등학생들과 모국어 발달이 거의 다 완료된 나이의 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언어정체성인식은 영어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언어정체성이 다른 외국어, 즉 일본어나 중국어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논문 또한 설문지조사가 가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위의 상관분석은 요인(factor)간에 서로 관계(correlation)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지 인과(causality)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지금 한국은 영어 광풍으로 조기유학, 영어몰입교육 등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다. 한 그룹의 언어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 아니다. 언어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언어정체성 인식이 체화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더 영어로의 노출을 높이고, 단순히 영어를 주입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학생들에게 영어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인식이란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깊은 이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뚜렷한 판단력이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란 자신의 모국어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네트워크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때 소통을 편리하게 해주는 언어가 영어일 뿐이다. 또한 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영어능력도 뛰어날 확률이 높는데(최진숙, 2008), 무조건 영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어 능력도 같이 길러줌으로써 영어의 학습효과도 높이고, 언어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연구자는 믿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한석. 2007. "제주도, 영어공용화지역 추진". 『제주투데이』(2007.6.7).
- 김정원. 2009. "영어공교육강화의 지름길, 온라인 교육". 『정경뉴스』(2009.6.4).
- 박영준. 2005. 『영어공용화 국가의 말과 삶』. 한국문화사: 서울
- 신창용. 2008. 신경림 시인 "영어 몰입교육은 반문학적". 『연합뉴스』(2008.6.5).
- 최진숙. 2003. English proficiency: Decline with the perception of Ethno-linguistic identity. *English Language Teaching*, 15(2), pp.1-27.
- 최진숙. 2004. The introduction of English as a second official language and Korean Linguistic identit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3), pp.129-149.
- 최진숙. 2006. Who accentuates an inter-group dialect in an inter-dialectal plac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4(1), pp.77-98.
- 최진숙. 2007.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언어학』, 15(2), pp.76-97.
- 최진숙. 2008. "대학생들의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관계-영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16(2), pp.72-93.
- 최인호. 2002. "영어공용화 문제 있다". 『한겨레』(2002.4.7).
- Beacham, R. 2001.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acquisition of English in language minority students receiving English-only instru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pperdine University.
- Coupland, N., & Jaworski, A. (Eds.). 1997. *Sociolinguis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 De Vaus. 1995. *Surveys in Social Research*. North Sydney: Allen & Unwin.
- Dole, R. 1987. On the motivation of Quebec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their English. *Bulletin-de-LACLA*, 9(2), pp.71-78.
- Ebele, T. F. 2001. *Social power and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why do Taiwanese learn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Edamatsu, F. J. 1978. The Japanese psycho-social barrier in learning English. *TESL-Reporter*, 12(1), pp.17-19.
- Edwards, J. 1985. *Language society and identity*. London: Billing & Sons Ltd.
- Fishman, J. A. 1972. *Language and nationalism: Two integrative essays*. Rowley, Mass: Newbury House.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Giles, H., & Coupland, N. 1991. Language attitudes: Discursive, contextual, and gerontological considerations. In A.G. Reynolds(ed.), *Bilingualism, Multiculturalism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p.35-6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iles, H., & Johnson, P. 1987. Ethnolinguistic identity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68, pp.69-99.
- Holmes, J. 2001.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2nd Ed. Essex: Longman.
- Homers, J. F., & Michel H. A. B. 1989. *Bilinguality and biligu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ert, W. E. 1974. Culture and language as factors in learning and education. In F. Aboud & R. D. Mead (Eds.), *Cultural factors in learning* (pp.178-190). New York: Academic press.
- Romaine, S. 1995. *Bilingualism* Oxford: Blackwell.
- Gudykunst, W. B. (Ed.). 1988.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 pp.65-93.
- Young, M. Y., & Gardner, R. C. 1990. Modes of acculturation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2(1), pp.59-71.

**Jin-sook Choi**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Yongsan University  
150 Junam-dong, Yangsan  
Gyungangnam-do  
626-790  
Phone: 055-380-9236  
Cell phone: 018-230-8725  
Email: jinachoi@ysu.ac.kr

접수일자: 2009. 07. 23

수정일자: 2009. 08. 18

게재일자: 2009. 08. 27